

하용조 목사 시편 연구 6

(1996. 1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그동안 찬양 시편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주제로 한 시편이 다시 몇 가지 주제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지를 찬양했습니다.

‘하늘이 영광을 선포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기자들은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쓴 시를 보면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들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 율법의 순결함, 완전함, 거룩함, 능력 등 - 을 찬양했습니다.

율법을 찬양함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천지는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율법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이 시편에서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뿐 만 아니라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땅 바닥에 있던 비참한 내 영혼이 부활하여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제한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만남으로 인해 영원에 잇대어 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속에 ‘영원’ 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생각할수록 가슴 터질 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 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게 하고 영원을 갖게 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하시고, 두 번째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주

시고, 네 번째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고, 여섯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더욱 벅차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정금보다 더욱 사모하는 것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만 들으면 줍니다. 그 사람은 이 정금이나 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두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33편과 103편 두편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 여러 가지 속성과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란 뜻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 가운데 ‘여호와와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란 뜻입니다.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로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영역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넛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깃발, 승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삼마’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엘론’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이런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사람마다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각자 다릅니다. 창조과학회의 김영길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꼭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시편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경배와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찬양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안기십시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 앞에 오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 아양을 떠십시오. 이것이 찬양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친척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형제가 있는데 큰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작은 아이는 이제 겨우 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형에게 까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다른 사람 몰래 동생을 때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눈물을 푹푹 흘리며 막 울어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지 않고 형에게 안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울면서도 자기를 때린 형에게 가서 막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참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안기십시오. 섭섭해도 안기고, 불편해도 안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없으면 못삽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시편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동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제 다리를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사람은 많고, 지금 바로 나와야 했기 때문에 기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안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없으면 못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나가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것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을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찬송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십니다.

미운 사람을 목상하면 미운 사람을 닮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목상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목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이 다 쓰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마귀가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정욕을 하나님을 위해 다 쓰게 하십시오. 그래야 허튼 곳에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드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시편을 보면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시편 기자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원수들이 자신들을 향해 덫을 놓고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무엇을 찬양해야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십시오!

영어로 ‘믿음’을 ‘faith’라고 합니다. ‘신실하다’는 ‘faithful’이라고 합니다. 믿

음과 신실한 것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실합니다. 변덕이 없습니다. 확끈한 것이 믿음이 아니요, 신실한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여러분의 믿음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든지 건강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지부동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변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신 하나님만 보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진실함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치렀던 애틀랜타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2~3시간이 걸리는 큰 산입니다. 그 산이 바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바위덩어리입니다. 저는 그 바위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바위처럼 변덕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면 시편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행동은 다 진실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어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총만하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righteousness and justice)’ 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unfailing love)’ 을 뜻합니다.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켜 ‘인자함’ 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따라서 공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방법대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내 방법대로 다 따라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 공의로운 사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6절로 가면서 천지창조를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보면 ‘말씀’ 과 ‘기운’ 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한 가지 더 있

습니다. ‘기운, 바람’ 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넣어주시니 생령이 된지라’ 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바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창조와 생성원리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113편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

다시 33편 8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루는 역사’ 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견고히 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는 복, 견고히 서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계획 흥하는 계획

10, 11절은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십니다. 열방이 허사를 경영합니다. 세상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없애버리십니다. 또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십니다. 민족마다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상, 사람의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다 폐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히 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계획은 망합니다. 국가의 계획도 망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문화는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사상은, 민족들의 사상은 다 폐하여 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시는 것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12절은 밀줄을 쳐 두십시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나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팔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도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의 십일조를 하나님을 위해 쓰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해도 복을

주시건만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놀랄까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교회성장률이 500%에 가까웠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오고, 사람들이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다니며 구름떼처럼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함께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동강이 난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복음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열심히 전도했더니 우리나라가 올림픽까지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이젠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통계로는 성장하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인데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휴가도 가지 않고 교회에 와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에 늙은이만 남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민족의 부흥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자나 정치학자가 논리로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최고로 좋은 아버지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아버지이거나 명예로운 아버지이거나 지위가 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나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시던 어머니입니까, 과외공부를 시키던 어머니입니까? ‘우리 엄마’ 라고 할 때 요즘 아이들은 도사락 2~3개 싸들고 밤 1시까지 공부하라고 하는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손잡고 주일학교에 가는 어머니가 참 어머니요 복 받는 어머니입니다. 과외공부는 열심히 시키면서 주일학교에는 다니지 못하게 하는 엄마들, 오히려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를 공부하라고 빼내는 엄마들, 오전만 다니고 오후는 공부하라는 엄마들은 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보시고, 하감하신다’ 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look), 보시고(see), 하감(watch)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매로부터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 살펴보고 있는 암탉과 같은 것입니다. 매가 뜨면 병아리를 감싸 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

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느낀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치려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은 ‘지킴의 장’입니다. ‘지킨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 같지만, 폭풍 속에 있었지만, 전쟁과 기근 속에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낮추십시오.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남을 비판하고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소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리를 낮추면 다른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낮추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내 고통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슬픔이 커 보이면 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충격은 받았지만 변화를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그랬습니다. 그들은 빈 그물을 들고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그들은 지치고, 배고프고, 춥고, 허탈했습니다. 부도내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지가 맞으니까 시작을 했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항상 좋지않은 것입니다.

그 때, 해변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십시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자기 상처와 자기 슬픔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시다!”

그가 소리치자마자 베드로는 땅인지 물인지 상관하지 않고 뛰어갑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무척 좋아서 “주님!” 하면서 뛰어갔지만, 그는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이 “너 그럴 수 있냐?” 라고 하셨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다 이 꼴이 되었느냐?” 라고 하셨다면 여자는 갈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여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해하려던 자가 다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죄인을 보호하십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보호하십니다. “주님,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래, 너도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춥고, 배고프고, 겸연쩍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베드로를 보며 예수님은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불에다 고기를 구워주시며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며 쉬셨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말을 하시기 전에 먼저 먹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상담가였습니다. 배불리 해 놓으시고 한마디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질문에서 ‘사랑(아가페)’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필레오(우정)’ 한다고 대답합니다. 한참 있다가 또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아가페)하느냐?”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필레오)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한참 있다가 세 번째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필레오)하느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세 번이나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물었을까요? ‘삼세번’ 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세 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세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할 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여러분이 가장 곤고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15절부터 17절을 읽어주십시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임이여 그

큰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look), 보시고(see), 하감(watch)하십니다. 군대가 구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가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하는 데에는 말이나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8, 19절입니다.

“여호와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에서, 기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군대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용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강한 말들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힘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아양을 떨고 아부하고 그분만 붙잡고 계십시오. 사람에게 그러는 것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려도 붙잡고, 발로 채여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목이 터질지라도 당신을 노래하겠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당신의 이름으로 들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6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팔뜨기’ 입니다. 하나님만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노래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빼놓고 다른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분만 노래하고 한 가지 그림만 그리십시오.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것을 분토로 여겼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지만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해 다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술을 끊는지 아십니까? 술 마시는 재미보다 예수 믿는 재미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붓글씨를 참 좋아했습니다. 등산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전도하느라 밤 12시에 들어 오는데 언제 등산하고 붓글씨를 쓰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시편을 읽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시편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시편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섯 가지 은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죄악을 사해주셨습니다. 둘째,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셋째,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넷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섯째,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죄가 용서받을 것이며, 네 병이 낫게 될 것이며, 네 생명이 파멸에서 구속함을 얻을 것이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쓸 것이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의 질병이 사라지며,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이 끝나며, 하나님이 파멸에서 구원해주시며,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움 받고, 평소에 소원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발이 춤을 추기를 바랍니다. 손은 손뼉을 치고 입은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실패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복은 이미 받았습시다. 앞으로 올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떠났습시다. 마귀는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8절도 중요합니다.

“여호와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기다리시는 하나님

9절입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자기 자식이 너무 밍게 보이다가도 관찮아집니다. 이런 아버지 마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좋게 해석해 줍니

다. 살인자를 자식으로 둔 부모도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착했다고 말합니다.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좋게 봐주시려고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살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경책치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쩔 뻔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1, 12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의 죄를 다 기억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동전을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 동전은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배를 멈춰서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죄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

이것이 예수 믿는 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복인 것입니다. 얼굴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얼굴을 펴십시오. 저주는 여러분과는 상관 없습니다. 실패는 여러분과 상관 없습니다.

13절입니다.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 부모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죄 사함을 받은 복은 얼마나 놀라운지!

14절입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인간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줌의 흙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
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
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승
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마귀를 발로 밟고, 축복의 대 행진곡을 계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